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인천의 꿈</b> <b>대한민국의 미래</b>
		배포일자	2022년 12월 21일(수) 총 4매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기획단	담당자	• 유치지원팀장    한창현 ☎440-3406 • 담당자            곽초롱 ☎440-3408	
	문화예술과	담당자	• 음악도시팀장    김은효 ☎440-4017 • 담당자            강선미 ☎440-401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이민 하와이 교민들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 하와이 한인단체, 「인천의 날」 행사에서 “이민사 공유하고 있는 인천에 유치돼야” -  
 - 유럽·우즈벡에 이어 세 번째 지지 선언, 재외동포 사회에 인천 유치 공감대 점차 확산 -

우리나라 근대 이민의 시작인 하와이 재외동포들도 인천 재외동포청 유치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에서 개최된 「인천의 날」 기념행사에서 하와이 소재 한인단체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 선언은 지난 11월 17일 유럽한인총연합회, 12월 17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에 이은 재외동포 사회의 세 번째 공식적인 지지 선언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공감대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 미주 사회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행사는 인천-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인천시의 자매도시인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와의 협력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유정복 시장, 허식 시의회의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하와이주 최초의 한인 부주지사로 선출된 실비아 장 루크(Sylvia J. Luke) 부주지사를 비롯해 현지 한인단체와 교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로 인천 출신 가수인 ‘사랑과 평화’의 공연에 이어 유정복 시장이 하와이 한인문화센터 최재학 회장 등 행사 유공자 및 단체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해리 김(Harry Kim) 전(前) 하와이 카운티 시장에게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시상했다. 이후, 현지 한인단체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식과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를 선언한 13개 한인단체\*는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다. 여기에는 최초 이민자인 인천내리교회 성도들이 건립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도 포함돼 있다.

\*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하와이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하와이한인체육회, 하와이한인미술협회, 한미재단 하와이,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 지도현시니어아카데미, KA우먼스크립, 하와이한인골프협회, 하와이 한미시민권연맹, 고송문화재단

인천 지지를 밝힌 단체들은 ▲과거 대한민국 근대 이민사의 출발지로서의 상징성, ▲현재 관문도시로서의 우수한 입지와 교통편의성, ▲재외동포 사회와 함께 초일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발전성 등을 이유로 들며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3개 한인단체를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한 박재원 민주평통 하와이협의

회장은 “하와이 한인사회와 인천시는 대한민국 이민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며, “우리 하와이 한인단체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재외동포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중심에 이민사의 출발점인 인천이 있다” 며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의 출발점이기도 한 인천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서 앞으로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 계신 재외동포들에 이어 대한민국 이민사의 뿌리인 하와이 동포들께서도 이민 12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 며,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하와이는 1902년 12월 22일 우리 국민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면서 우리 민족의 공식 이민이 시작된 곳으로 우리나라 이민사에서 특별한 곳이다. 첫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 은 법정 공식기념일로 미국 사회에서의 한인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와이 재외동포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독립운동과 전쟁물자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공헌했으며, 지금도 민간 외교관으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와이를 포함한 미주지역 한인은 2020년 12월 기준 263만여 명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